

“새해엔 싸우지 않고... 열심히 싸우겠다”



2015년 올미년 양의 해를 사흘 앞둔 29일 오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서 한복을 차려입은 양들이 관람객들과 행진하며 바짝 다가온 양의 해를 축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대통합·경제 살리기 ‘이구동성’ 서청원·김영환 “국민이 행복한 을미년”

정치

다가오는 2015년은 을미년(乙未年) 청양(靑羊)의 해이다. 주목받는 양띠 정치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새해에는 여야가 국민을 위한 정치복원에 힘을 쏟을 것임을 희망했다.

우선 여당인 새누리당에는 최다선(7선)인 서청원 최고위원(43년생)이 있다. 서 최고위원은 새해에 경제가 온기를 되찾고 박근혜정부의 혁신과제가 성과를 맺길 기원했다. 서 최고위원은 “평화와 정의, 청렴의 상징인 양의 해를 맞아 경제가 회복되고 각종 혁신정책이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은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띠 정치인 중 최고참인 친박(친박근혜)계 중진 김태환 의원(43년생)은 “평화를 상징하는 양은 무리지어 집단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싸우지 않고 위기가 와도 함께 대처한다”며 “내년에는 화합하고 하나되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원했다.

재선의 유일호 의원(55년생)은 “박근혜정부 출범 때 광장히 중요시했지만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국민대통합과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국정과제인 경제 살리기, 두 가지만 절해도 성공적인 한해가 될 것”이라며 “양띠로서 더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새정치연합의 중진 김영환 의원(55년생)은 “올해는 경제나 남북관계, 국민통합 다 어려운 상태였는데 내년은 양의 기질처럼 오순도순 사회가 화목하고 통합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양이 떼를 지어 무리생활하는 것처럼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고 자기를 버리고 나라



서청원 의원



오영식 의원

와 당을 생각하는 숭수수의 자세를 갖자”고 소망했다.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도 “계파, 패권 두 단어가 사라져 새로운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동년배인 홍의락 의원(55년생)은 “내년에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너무 무방비상태라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도 “당에 허리가 없는데 3선 의원들이 책임을 다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손소리’를 했다.

내년 2월 초 치러질 정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낸 오영식 의원(67년생)은 “2015년에는 새정치연합이 정말 다시 태어나고 새로워져서 국민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길 바란다”며 “당에 몸담은 의원으로서 당을 살릴 길이 있다면 뭐라도 하고픈 심정으로 나선 만큼 일할 기회가 된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송호창 의원(67년생)은 “새해 정치권이나 당이나 서로 양보하고 상대를 포용해 갈등을 줄였으면 좋겠다”면서, 안철수 의원의 측근으로서 안 의원에게 “지난 2년을 성찰하고 거기에 바탕해 리더십을 채우는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84세 염홍섭 서산 회장 현장 경영 활발 환갑 맞는 신동빈·박용만·현정은 회장

경제

‘양띠’해에 재계 인사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 재계 양띠 회장님들=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박용만 두산건설 회장, 천신일 세콤그룹 회장, 양규모 KPX그룹 회장, 지대선 광림 회장, 박도문 대원그룹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신용기 원림 회장 등은 모두 1943년생 양띠 동갑이다.

내년에 환갑을 맞는 1955년생 ‘양띠 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이다.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 구자용 E1 회장, 담철곤 오리온 회장, 정몽운 현대해상화재 회장, 김호연 빙그레 회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구자철 한성 회장, 우석형 신도리코 회장, 허명수 GS건설 부회장, 김량 삼양홀딩스 부회장 등도 내년에 환갑인 동갑내기다. 1931년생인 정동섭 동일제지 회장, 민영인 YBM사 회장, 심정기 선광 명예회장, 권재기 세명전기 회장, 염홍섭 서산 회장은 84세의 나이에도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1967년생 양띠 동갑인 이혜진 네이버 이사회의장과 김택진 엔씨소프트 사장은 30대 초반 나이에 정보기술(IT) 벤처를 설립해 성공신화를 썼고, 한때 교육 열풍을 몰고온 손성은 메가스터디 대표이사도 동갑이다. 1979년생인 최성원 동양고속 회장은 30대 젊은 나이에 최고경영자에 오른 주인공이다.

◇대기업 전문 경영인, 1955년 양띠가 다수=대기업 CEO로 활약하는 양띠 경영인 중에선 1955년생이 많다. 삼성그룹 계열사 CEO로는 김창수 삼



허동수 회장



염홍섭 회장

성생명 사장과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장원기 삼성전자 사장 등이 대표적이다. 현대차그룹에선 강학서 현대제철 사장과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김위철 현대엔지니어링 사장, 여승동 현대이모모 사장, 윤준보 현대위아 사장 등이 동갑내기 전문 경영인으로 꼽힌다.

SK그룹에선 박장석 SK 부회장, 최광철 SK건설 사장이 CEO로 활약 중이다. LG그룹의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과 박영기 LG화학 사장, 롯데그룹의 황각규 롯데쇼핑 사장과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이사, 김지현 롯데건설 사장, 김영순 롯데알미늄 대표이사 등도 1955년생이다.

◇차세대 젊은 양띠들=재계의 차세대 주자 중에서도 양띠가 적지 않다. 허정수 GS네오텍 회장의 아들 허철홍 GS과장과 천신일 세콤 회장의 장남 천호진 세콤 사장, 김근수 후성그룹 회장의 아들 김용민 후성그룹 사장,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의 아들 박서원 빅엔트 사장 등은 떠오른 차세대 양띠 주자들이다.

윤석규 웅진그룹 회장의 아들 새봄 씨와 최창영 고려아연 회장의 아들 정일 씨, 흥영철 고려제강 회장의 아들 석표 씨, 단재한 한국제지 회장의 아들 우영 씨도 차세대 주자로 부상한 재벌가 2세로 알려졌다.

여성월드컵 두번째 본선...지소연 첫 출전 제2의 이동국 꿈꾸는 ‘신데렐라’ 이정협

스포츠

박한이 “15년 연속 100안타”

높은 곳을 좋아하는 양의 습성에 걸맞게 각 종목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려는 스포츠계 양띠 스타들이 남다른 각오를 다지고 있다.

대표적인 양띠 스포츠 선수는 여자 축구계의 ‘지메시’ 지소연(첼시 레이디스)이다. 1991년생인 그녀는 내년 2월 21일에 만 24세가 된다. 그녀는 ‘청양(靑羊)’의 해를 맞아 일생일대의 도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바로 2015 캐나다 여자 월드컵이다. 한국은 2003년 이후 12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로 여자 월드컵 본선에 나선다. 지소연에게는 첫 번째 월드컵 무대다.

올해 초 첼시에 입단, 한국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잉글랜드 무대에 진출한 지소연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실력을 세계 축구팬들 앞에서 과시할 전망이다.

남자 축구에서는 올 시즌 K리그 대표팀 감독의 ‘신데렐라’가 된 이정협(상주)이 청양의 기운을 받아 피동갑 선배인 이동국(전북)의 후계자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소년 대표 경력 시원치 않은데도 소속팀에서도 주전이 아닌 그는 2015 호주 아시안컵을 앞두고 대표팀에 ‘깜짝’ 발탁됐다.

프로야구에서는 1979년생인 박한이(삼성)가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삼성의 5년 연속 통합우승과 자신의 15년 연속 100안타 달성이다. 양준혁(은퇴)의 16시즌 연속 세자릿수 안타에 이은 프로야구 사상 2번째 기록이다.

2011년 데뷔한 이래 해마다 안타 100



지소연 선수



이정협 선수

개 이상을 기록하며 기록 없는 활약을 펼친 박한이는 양준혁의 대기록을 넘어 서겠다는 의지가 높다.

최근 4년째 FA(자유계약선수) 계약에 체결, 사실상 ‘영원한 LG맨’이 된 박용택도 1979년생이다. 4년 후 그가 또 다른 LG 프랜차이즈 스타인 이병규의 대기록들을 갈아치울지 팬들의 관심이 크다. 지난 시즌 외국인 선수로는 5년만에 골든글러브를 차지한 넥센 히어로즈의 투수 앤디 밴 헤켄도 양띠다.

시즌이 한창인 프로배구에서는 프로 2년차 ‘신세대 거포’ 전광민(한국전력)의 활약이 단연 돋보인다. 데뷔 시즌 이미 소속팀과 국가대표팀에서 에이스로 떠오른 그는 올 시즌에도 거의 모든 공격 부문 기록에서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농구에서 한국이 12년만이자 자신의 두 번째 금메달을 따낸 1979년생 김주성(동부)은 통산 블록슛 1천개 달성이라는 전인미답의 경지에 도전한다. 그는 26일 현재 블록슛 959개로 이 부문 역대 1위다.

데뷔 시즌 성공적으로 프로농구에 안착하며 흥행에 불을 지핀 1991년생 김종규(LG)와 두경민(동부) 역시 후반기 맹활약이 기대된다.

/연합뉴스

(주) 대원여행사
062)526-7000
www.daewontour.com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대원빌딩 1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광주지역 062)525-4835 광주송정지역 062)941-3278
기차여행
KORAIL 한국관광공사
광주본부 광주문화재단

12월 31일(수) 무박2일 기차여행
정동진 새해일출 (무궁화호)
시간 일 정
22:00 광주송정역 집결 후 출발
06:53 정동진역 도착 후 출발
07:00 정동진일출/천곡동굴/추암호대바위/목호항어시집 자유관광
15:30 동해역 출발
22:50 광주송정역 도착
성인/경노/청소년 115,000원~ 소아 83,000원~

12월 31일(수) 무박2일 기차여행(광주송정출발)
KTX로 떠나는 새해일출
시간 일 정
21:00 광주역 집결 후 출발
23:24 서대전역 도착 후 출발
04:30 낙산사일출/휴휴암/주문진어시장/정동진 관광
18:56 서대전역 출발
22:00 광주역 도착
성인/청소년 95,000원~ 경노 93,000원~

12월 31일(수) 무박2일 기차여행(광주송정출발)
KTX로 떠나는 새해일출
시간 일 정
21:10 광주송정역 집결 후 출발
23:32 서대전역 도착 후 출발
04:30 낙산사일출/휴휴암/주문진어시장/정동진 관광
19:25 서대전역 출발
21:09 광주송정역 도착
성인/청소년 95,000원~ 경노 93,000원~

1월 8일, 15일, 29일 1박2일 여행
우리의 땅 대마도 목요일 출발
요일 시간 일 정
(목) 05:00 광주 집결지 집결 후 출발
1/8 09:30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출항
1/15 한국전망대/미우다하미/원통사/
1/29 에보시타케 전망대/와타즈미
10:40 신사 관광 후 호텔로 이동
이완용매국비/수선사/덕해음주점
봉축비/조선통신사비/고려문
(금) 16:00 대마도 이즈하라항 출항
18:10 부산 도착 후 광주로 출발
광주출발조건 20명이상 / 1인 249,000원
부산출발조건 2명이상 / 1인 199,000원